

청소년 동성애자의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에 미치는 과정에 관한 연구

강 병 철, 하 경 희(서울대학교 대학원)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위험성의 원인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민을 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이들이 학교부적응, 우울, 자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변의 반응이나 반동성애폭력경험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원인들에 대하여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해냄으로써 청소년 동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경험들이 어떻게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밝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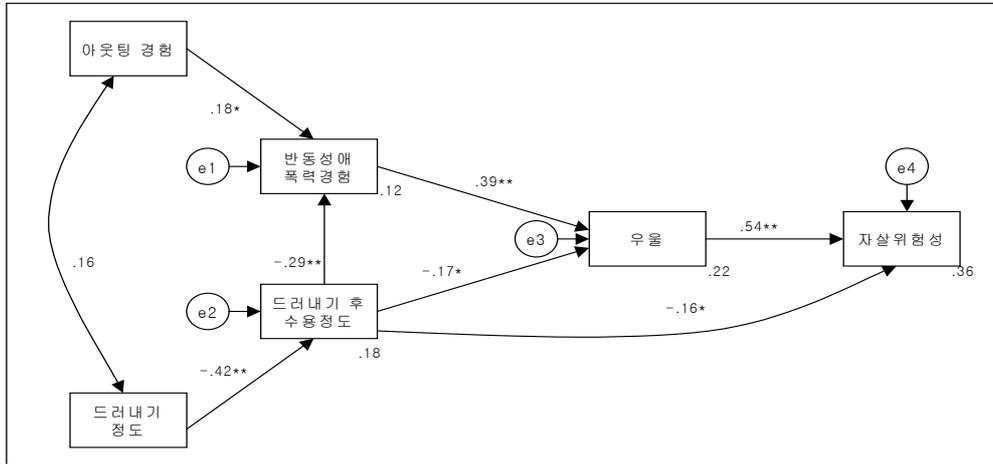
2. 연구방법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동성애자로 규정하면서 적어도 1명 이상의 타인에게 드러내기를 한 경험이 있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15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동성애자의 드러내기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과정을 AMOS 6.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성과 경로계수의 유의미성,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투입된 주요변수는 드러내기 정도, 아웃팅경험, 드러내기 대상의 수용정도, 반동성애폭력경험, 우울, 자살위험성이다.

3. 주요 결과

최종 모형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분석결과는 모형적합도가 $X^2=10.331(d/f=7)$, $p=.171$, $NFI=.918$, $IFI=.972$, $TLI=.905$, $CFI=.968$, $RMSEA=.065$, $PCFI=.323$ 로 연구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청소년 동성애자의 드러내기 정도나 아웃팅의 경험이 자살위험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드러내기 후 수용정도나 반동성애 폭력 경험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우울과 자살위험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변수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모형 변수의 효과의 분해 : 표준화 계수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아웃팅경험→반동성애폭력경험	.179	.179	-	수용정도→반동성애폭력경험	-.291	-.291	-
아웃팅경험→우울	.069	-	.069	수용정도→우울	-.283	-.170	-.112
아웃팅경험→자살위험성	.037	-	.037	수용정도→자살위험성	-.307	-.155	-.152
드러내기정도→수용정도	-.419	-.419	-	반동성애폭력경험→우울	.386	.386	-
드러내기정도→반동성애폭력경험	.122	-	.122	반동성애폭력경험→자살위험성	.207	-	.207
드러내기정도→우울	.118	-	.118	우울→자살위험성	.537	.537	-
드러내기정도→자살위험성	.129	-	.129				

효과분해를 통해 청소년 동성애자의 드러내기 정도와 아웃팅 경험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경로는 다음의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경로 1] 드러내기 정도→수용정도→자살위험성

드러내기를 많이 할수록 그에 대한 수용정도가 낮아지고(-.419), 수용정도가 낮을수록 자살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155).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64 (-.419×.155)이다.

[경로 2] 드러내기 정도→수용정도→반동성애 폭력경험→우울→자살위험성

드러내기를 많이할수록 그에 대한 수용정도가 낮아지고(-.419), 수용정도가 낮을수록 반동성애 폭력경험이 많아지고(-.291),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지고(.386), 우울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위험성도 높아진다(.537).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025(-.419×-.291×.386×.537)이다.

[경로 3] 아웃팅 경험→반동성애폭력경험→우울→자살위험성

아웃팅 경험이 많을수록 반동성애폭력경험이 많아지고(.179), 반동성애 폭력경험이 많아질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지고(.386), 우울정도가 높아질수록 자살위험도가 높아진다(.537).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37(.179×.386×.537)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청소년 동성애자의 드러내기 및 아웃팅 경험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총효과는 .126이며 3가지 경로 중 [경로 1]의 효과가 .064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경로 3], [경로 2] 순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수용정도, 아웃팅, 반동성애폭력경험과 같은 사회적 반응은 이들의 우울과 자살위험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성애중심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절절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가족, 학교 그리고 넓게는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반인권적 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기관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들과 직접 접할 가능성이 높은 실천가들의 경우 성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실천과정에서 오히려 이들에게 또 하나의 사회적 편견으로 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